



한시 러브레터
강혜선 지음

조선시대 문인들의 편지

옛 문인들은 편지를 보낼 때 대개 두 벌을 썼다. 하나는 상대에게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보관했다. 더러는 종이에 남은 필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기 위해 편지를 묶어 책자를 만들기도 했다.

성신여대 국문과 강혜선 교수가 펴낸 '한시 러브레터'는 조선시대 편지로 한시를 주고받은 문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옛 선인들의 정과 뜻이 담긴 글들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조선 후기 문인 김려는 의사촌에게서 빌려 온 서첩을 뒤적거리다가 벗 김조순의 편지 몇 장을 발견했다. 그냥 돌려보내기 아쉬워 종이를 가져다 놓고 편지를 옮겨 적었다. 순간 일상의 편지는 특별한 문학 행위로 전이되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처럼 문인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소중한 일상부터 다양한 풍경이 한시로 형상화되어 있다. 산문시가 범접하지 못할 응축된 아름다움과 해학이 담겨 있는 이유다. <북멘토·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올리버 스톤·피터 커즈닉 지음

제국으로 변하는 미국 추적

미국 현대사의 굵직한 테마를 스크린에 담아왔던 영화계의 거장 올리버 스톤과 아메리칸 대학 역사학과 교수 피터 커즈닉이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동안 미국의 역사는 이타주의와 자선, 야망, 자유와 정의에 대한 소명, 헌신 같은 덕목을 발판으로 다루어져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를 토대로 저자들이 바라본 미국의 역사는 아름답기는커녕 고통과 추함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은 미국이 제국으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추적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그 주변의 핵심 참모들이 정책 형성을 이끄는 밑줄을 예리하게 들추어낸다. <들녘·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과학한다는 것

에른스트 페터 피셔 지음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학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를 알아내는 것을 일컫는다. 인간의 행위는 상당부분이 같은 과학의 원리에 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과학을 신뢰하는 것은 감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과학과 감성? 과학과 예술? 사물 이질적인 조합으로 보이는 두 영역이 사실은 너무도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다. 양극단은 통한다는 원리와 흡사하다.

대문호 괴테는 과학에서 어떤 전체적인 양식을 기대한다면 먼저 과학을 반드시 예술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과학과 예술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글쓰기로 유명한 독일 에른스트 페터 피셔(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가 '과학한다는 것'을 펴냈다.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보

듯 저자는 학문에 동사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제 과학을 일반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근대 사유의 근간 중 하나가 인간이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과학한다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저자는 이 소통을 '인간' '감성' '예술' '교양'이라는 키워드에서 찾는다. 몇 년 전부터 유럽에 불기 시작한 '대중의 과학 이해'는 더 이상 과학이 실험실에 틀어박힌 연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학은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의 마음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과학 없는 예술은 우스꽝스러운 것에 머무를 위험성이 많고, 예술 없는 과학은 비인간적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결국 과학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작업이 인류의 관심사나 감정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과학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책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철학자 등이 등장한다. 저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셰익스피어, 괴테, 니체, 고흐, 쇠라, 릴케, 보르헤스를 거론하며 시공의 경계를 넘나든다. 예술가, 사상가들의 통찰이 과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적인 주장이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시인 릴케는 통일의 행위를 '겨울이 아니라 장문'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은 겨울처럼 비추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준다. 즉 보이는 것(떨어지는 사과)을 보이지 못하는 것(중력)을 통해 설명하는 게 과학이다. 장문의 역할이 과학의 본질과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객관적, 과학적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객관적인 방식에 '전체성'을 가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근현대 과학의 실험과 측정을 매개로 전문영역으로 분화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천문학 대상은 별이고, 화학은 물질, 생물학은 유기체가 대상이다. 이 같은 전체는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면 제기되는 질문의 답 또한 명쾌하게 정리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분야와 무관한 질문이 제기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증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답하기가 모호해진다. 객관적이며 개별적인 대상에 집중했던 터라 객관성이 취약해지고 마는 것이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른 이들의 교감이 필요한 이유다. 저자는 이를 '교양'이라고 정의한다. 직업상의 차이를 넘어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양이다. "과학 교양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은 자립심과 자유를 누릴 힘을 갖게 될 테고, 이 힘은 정신적 놀이로서 문화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비로소 서두에서 제기했던 '과학하는 것'의 의미가 또렷해진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와 전체적 관계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라는 거다. <반니·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과학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작업이 인류의 관심사나 감정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니 제공>

모순의 시대 온 몸으로 저항한 김남주 시인



김남주 산문 전집
맹문제 지음

"문학의 한 갈래로서 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 시의 기반은 삶의 타전이고 노동의 대상인 인간의 대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시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먹고 입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요소들을 마련해주는 농부의 땅이와 낫과 호미이고, 어

부의 배와 그물이고, 노동자들의 대패와 망치, 광부들의 다이너마이트 등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단 시대를 온몸으로 저항하며 치열한 작품 활동을 하다 타계한 김남주(1945~1994) 시인의 산문을 모은 책이 나왔다. 안양대 국문과 맹문제 교수가 엮은 '김남주 산문 전집'은 시인의 치열한 삶과 내밀한 정을 담아낸다.

해남에서 태어나 전남대 영문과에서 수학한 김남주는 1974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갯더미'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1972년 반유신 투쟁 신문 '함성'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쳤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으며 1988년 석방되었

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아 불행하게도 1988년 암으로 사망한다.

산문집에는 문학과 정치에 대한 예세이는 물론 아내에 가족, 지인들에게 남긴 서신들이 망라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기, 대담, 강연 원고도 수록되어 김남주의 삶과 문학을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연보와 부록이 첨부돼 김남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이후의 시인의 행적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새롭게 발굴된 초기 시 작품 다섯 편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푸른사상·3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혼란의 경제학, 과학 혁명자들의 해법은?



돈, 피, 혁명
조지 쿠퍼 지음

과학자 출신의 금융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조지 쿠퍼가 경제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담긴 책 '돈, 피, 혁명'을 펴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맞았다. 경제학자 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지만 누구도 명쾌한 해

법을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쿠퍼는 혼란했던 과학혁명 직전의 시기를 예로 들어 경제학에도 혁명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한다. 오늘날 경제학이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전의 천문학, 하비의 혈액순환 발견 이전의 의학, 다윈의 진화론 이전의 생물학,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이전의 지질학과 서로 얼마나 닮아있는지 제시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혼란 속 경제학의 해답을 위대한 과학 혁명가들에게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경제학이 진정한 과학의 영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민해 볼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유아이북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 예약문의 (062)525-2111 | www.geumsoojang.com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